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최선 KBA RAPIDA 105 인쇄기 도입

진흥문화(주)(대표이사 박형호)는 지난 9월 30일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독일제 KBA 오프셋인쇄기 도입 및 성수동 공장 시설확장 기념식을 갖고 한국 인쇄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도입한 KBA RAPIDA 105 인쇄기는 5색 오프셋으로 최대 시간당 1만8000매를 인쇄할 수 있는 고성능 기계다. 진흥문화(주)는 앞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인쇄기 도입으로 캘린더, 연미술 등을 인쇄함에 있어 진흥문화의 새로운 도전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인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양한 인쇄물 인쇄 가능한 KBA RAPIDA 105

박형호 대표는 “신중한 고려 끝에 KBA RAPIDA 10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수준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인쇄품질이나 내구성에서도 만족스러웠고, 종이의 종류에 제약이 거의 없이 인쇄가 가능하다는 것도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기존의 RAPIDA 105 Universal 모델로부터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RAPIDA 105 오프셋인쇄기는 시간당 1만5000매의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선택사양 장착시 최대 시간당 1만8000매를 인쇄할 수 있는 중형 인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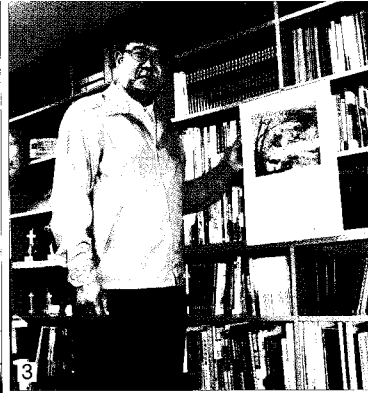
이 인쇄기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대 7색도까지 맞춤형 인쇄기 구성이 가능하며 코터 외 UV 및 Hybrid 인쇄옵션을 장착할 수 있다. 다재다능성에 초점을 맞춘 RAPIDA 105 인쇄기는 상업광고물, 도서, 라벨 및 판지 등 다양한 인쇄물을 인쇄

할 수 있으며 모든 인쇄 자동화 프로그램이 중앙제어콘솔로부터 제어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조작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과 제품 신뢰성 및 생산성을 보장하는 인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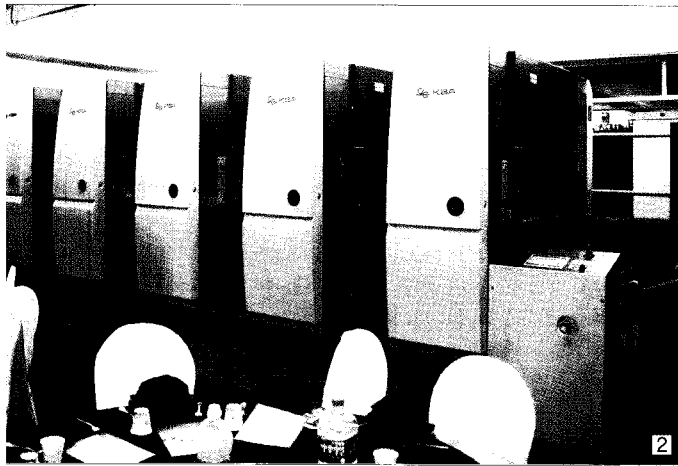
새로운 도약의 전기 마련

진흥문화(주) 박경진 회장의 장남인 박형호 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MBA(경영학석사)를 마치고 가업 승계를 택했다. 입사 2년 만인 2003년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 대표는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종판용 일반 달력 사업을 2004년에 접고 국내외 기독교 달력에 집중했다. 생산부수가 200만부가량 줄면서 매출도 15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내친 김에 회계를 비롯한 낙후된 기업관리 시스템도



1. 진홍캘린더 성수동 공장 전경
2. 이번에 도입한 KBA라피다 105 인쇄기
3. 박형호 대표이사
4. 기계 도입식 기념 케익 커팅



하나하나 고쳐나갔다. 이어 박 대표는 “올해까지 내부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회장님이 세운 기업을 더 크고 건실하게 키워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웹 발주 시스템 등 앞서 가

진홍문화(주)는 더 많이 움직이고 빨리 작업하는 것으로 고객 서비스의 방향을 설정했다. 설립 이후 24시간 작업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24시간 작업체제를 확립하면서 자체적인 배송시스템도 함께 연계해 타 지역이라고 해도 주문 인쇄물의 90%이상을 익일에 출고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인쇄품질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일부 고객들의 갖고 있던 빠른 납품시간에 따라 인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나게 했다.

사업 다각화 및 수출 확대

박 대표는 진홍문화에 대해 “어릴 때부터 ‘진홍문화는 나와 함께할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건 생각하지 않았다”며 “미국에 유학을 간 것도 새로운 경영기법을 배워 진홍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표이사가 된 지 7년이 됐지만 아직도 큰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 자문을 구한다”며 “오랫동안 고민

하던 문제가 단번에 풀릴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고 말했다.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내부 역량 강화’에 주력해온 박 대표의 다음 목표는 사업 다각화 및 수출 확대를 통해 진홍문화의 규모를 키우는데 두고 있다. 사업 다각화의 경우 이미 교회용 월간지 제작과 학습지 인쇄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박 대표는 이번 기계 도입으로 현재 7대3 수준인 캘린더 인쇄와 일반 인쇄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대5 수준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 차세대 에이스 회장

현재 진홍문화 박형호 대표는 중소기업 2세경영인 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경영정보 교류, 기업방문을 통한 성공적인 경영 노하우 전수, 초청강연을 통한 체계적인 기업승계와 리더로서의 소양습득은 물론 세법, 법률 등 승계 기업의 성공경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경영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확장은 물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모임의 약어인 ‘차세대 A.C.E.’는 칭찬(Admiration)과 박수(Clap), 격려(Encouragement)를 뜻하는 영문 이니셜로 스포츠용어인 ‘최고 선수’와 같이 기업승계 기업을 통해 ‘최고의 비즈니스 리더’가 되겠다는 서울지역 2세 경영인들의 각오와 포부를 담고 있다. ☞